

# “팔만대장경속에 삶의 진리 있어요”

전국교법사단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불심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경전 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최근 출간된 <벽 틈으로 바람 들어오듯 마음 틈으로 욕심 들어 온다>(시공사)는 지난해 올전을 소재로 한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낄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에 이은 두 번째 권, <아함경>에서 가려 뽑은 97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마음 길들이는 방법과 '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아의 문제 등을 살핀 '나를 알기 위하여'를 비롯해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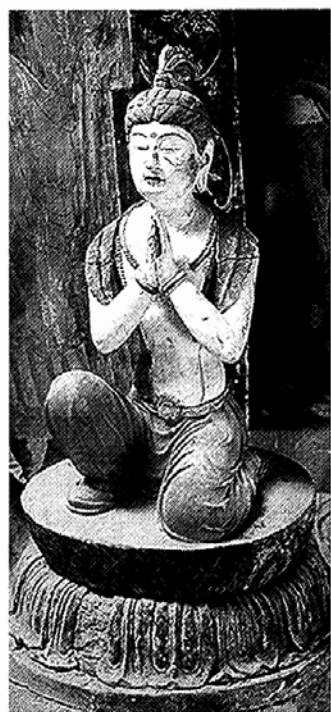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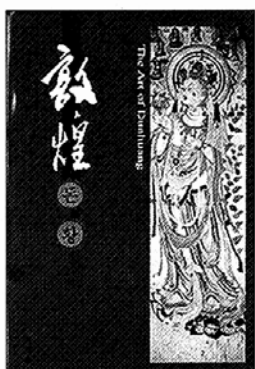
**책과 삶**  
'경전말씀 모음' 펴내는 김영동 교법사단장

**주요 내용 가려 뽑아**  
**청소년 가치관 함양**

'경전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전국교법사단장 김영동(46·동대부교) 교법사를 만났다.  
-경전 말씀 모음 시리즈를 펴내게 된 취지는.  
"우리들은 팔만대장경을 민족문화, 세계문화유산으로만 연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진리로 말미암아 단 한명이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교적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삶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구성 방식과 수록되는 내용은.  
"이 시리즈는 크게 올전·아함부·본연부·대승경전·부처님 말씀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눠 모두 5권을 해마다 펴낼 계획이다. 전국교법사단 문서출판위원회가 주축으로 펴내는 이 시리즈에 수록되는 내용은 불·법·승에 대한 것(信),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것(解), 삶의 태도에 대한 것(行)으로 한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 본문은 경전 내용 소개와 그에 대해 청소년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청소년들의 의문을 품는 교리의 문제점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한다는 것이 편집의 기본 원칙이다."  
-집필자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금까지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포교의 경험과 집필 역량을 갖춘 몇몇 교법사들을 주축으로 했다. 3권부터는 각 부분별로 나눠 28명의 모든 교법사들이 집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을 펴내기 위한 과정 또한 법사들이 경전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응은 어떤가.  
"본래의 기획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주요 독자층은 청소년들이지만 의외로 일반불자들의 관심이 높다. 첫 권의 경우 3천부 이상이 판매됐을 정도다."  
김중근 기자

# 2백93장 사진 속 '막고굴 불교'

'돈황' 최혜원·이유진 공역



◇공양보살상(384窟).

중국 불교예술의 보고인 돈황 막고굴. 그 굴에 봉안된 벽화, 불상, 경전 필사본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293개의 유물사진을 담은 컬러 도록 <돈황>(최혜원·이유진 공역, 범우사) 나왔다.  
이 도록은 중국의 풍속, 신화, 역사 그리고 불교사 등 중세 돈황 문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돈황석굴 전시'라 할 만하다. 또한 이 책에는 돈황 석굴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각 석굴과 벽화의 특성 및 아름다움 등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 4편과 도판 설명이

**동·서 불교교역사 '한눈' 도판·논문도 실어**

수록돼 있어 단순한 감상을 넘어 돈황 석굴의 내밀한 세계로 이끈다.  
1천6백여 년 전 낙준 스님에 의해 시작돼 서위-북주-수-당-5대-송-원대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에 걸쳐 조성된 돈황 막고굴은 거대한 불교미술관이다. 1,600여 미터에 걸쳐 여러 층으로 뿔린 이 석굴군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492개. 벽화의 총면적은 4,500평방미터로 이를 1m 폭으로 이으면 무려 45km에 달한다. 방대한 규모의 돈황 막고굴은 천불동(千佛洞)으로 불릴 만큼 석굴군 안에는 수많은 불상과 벽화 등이 봉안돼 있었다. 하지만 불상과 회화 필사본 등 45만여건이 제국주의

자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현재까지 남은 돈황 유물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 중 정수만을 가려 뽑아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돈황은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동서문화의 교차지로 각국의 작품들 속에는 1천여년간 이 지역을 지배한 한족, 서역인, 티베트인 등의 종교와 문화 사상이 녹아 있다. 돈황이 불교도시로 변천한 것은 당나라 때다. 이 시기에 323개의 굴이 조성됐으며 45굴의 칠존상과 보살상은 불교미술의 백미로 꼽힌다. 또 321굴 천장에 그려진 '아미타레염도'는 신라 에밀레종에 새겨진 비현상의 원형을 보는 듯하다. 세계미술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는 돈황 막고굴의 작품들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 책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돈황은 신라의 혜초 스님이 장기간 머물면서 여행기를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 신부 펠리오가 17굴에 보존돼 있던 1만 여권의 고사본(古寫本) 터미에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록은 출판인 율령두 씨가 <한국 전적 인쇄사> <한국의 고지도> <경채 정선 진경산수화> 등에 이어 펴낸 기념비적 출판물 가운데 하나다. 중국 돈황연구원과 돈황현 박물관이 합작해 만든 이 책은 범우사가 중국 장쑤미술출판사와 독점 계약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 값 13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 작은 불교 교양잡지 '풍경' 창간



쉽고 재미있는 불교잡지가 없는 가운데 불교적인 정서와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작은 교양잡지 <풍경>(법행인 이경현 창간호가 나왔다.  
월마다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는 이 잡지는, 주제마다 여는 글을 <법경>, <아함경> 등에서 뽑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창간호 테마는 처음-만남-동행-기쁨이다. 본문은 '생각 나무와 마음 나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생각 나무 편에서는 상식, 발명, 역사 등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실고, 마음 나무 편에서는 독자들과의 글을 비롯해 감동적이면서도 사색을 즐기게 하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주말에 읽는 쪽지에는 육아와 직장이야기를 담은 만화를 실는다.  
스님들의 행자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행자일기', 불교와 관련된 뜻있는 글과 그림이 있는 이야기 '생각의 숲터', 속담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속담 알기 과학알기', 음식으로 풀어보는 영화 이야기 '부엌에서 보는 영화' 등 모두 7편의 연재글도 있다.  
현재 시중에서 <좋은 생각> 등 작은 교양잡지 10여 권이 있는데 불교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다가가는 잡지는 이번에 창간된 <풍경>이 유일하다. 값 2천원. 김중근 기자

# 윤회의 주제 아리아식의 비밀



'불교에서 본 마음과...' 현오 스님 지음  
전생과 윤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흥미위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생과 윤회를 배고 불교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 불교의 궁극 목표이기 때문이다. 신간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논장은 마음을 불교의 교리로 설명하면서 윤회와 전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전생 체험은 아리아식에 있는 기억증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즉 아리아식은 윤회의 주제로서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매일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 주는 마음이란 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라마승이 밝힌 람림 명상법

'깨달음의 길' 진우기·신진욱 옮김

티베트에서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고승들이 크고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읽어준다. 이 때 책을 읽어주는 스승은 그 책을 쓴 지은이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 받은 사람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원전을 먼저 읽은 다음, 책에 대한 평과 일화 그리고 읽는 이의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공부법이다.

신간 <깨달음의 길>(진우기·신진욱 옮김, 부디스트립닷컴)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된 책읽기를 엮은 것으로, 지난 76년 다람살라에서 4대 달라이 라마가 라마가 쓴 <람림 명상법>을 읽어주고 해설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티베트에는 람림에 관해 쓴 책들이 수백권에 이른다. 이 가운데 티베트 고승들이 뽑은 8대 람



림이 있다. 그 처음 세권이 종카파가 쓴 주석서이고, 그 다음이 3대 달라이 라마가 쓴 '람림 명상법'이다.  
이 책은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수행법인 람림 명상의 역사와 배경에서부터 스승과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적고 있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함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우	우리
3	선방일기	지해	다지인하우스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여시야론
5	도움에게 던진 사자후	서병후	화두
6	참회 참회 기도법	김현준	효림
7	금강경 강의	혜거	부디스트립닷컴
8	영가전도	우룡	효림
9	선의 나침반	현각	열림원
10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현암사

도서 안내: (02)737-0695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불가의 전통적인 사제관계를 재조명!

# 광덕스님 시봉일기

1. 내일이면 늦으리 2. 징검다리

글·송양지현 / 신국판 양장제본 / 1권(387쪽) 10,000원 · 2권(622쪽) 15,000원

스승과 제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승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들에게 삶의 기둥이 되어줄 인생의 스승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일화를 통해 불가의 스승 설법을 살펴본다.

한국불교의 기둥으로 우뚝 서 계셨던 광덕 스님! 스님의 향기와 자취는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맞는데 정작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아니 계신다. 그 안타까움을 가시줄 책이 세상에 나와 다스름 광덕 스님을 우리로 보게 해준다.....

광덕스님의 상좌인 송암스님이 행자생활 때부터 스님을 모시면서 직접 밟고 보고 느낀 감명깊은 현장, 스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언담 등, 그때그때마다 한 곡저씩 적어 두었던 생생한 현장일기를 시봉일기 1·2라는 책으로 엮어 우리 앞에 내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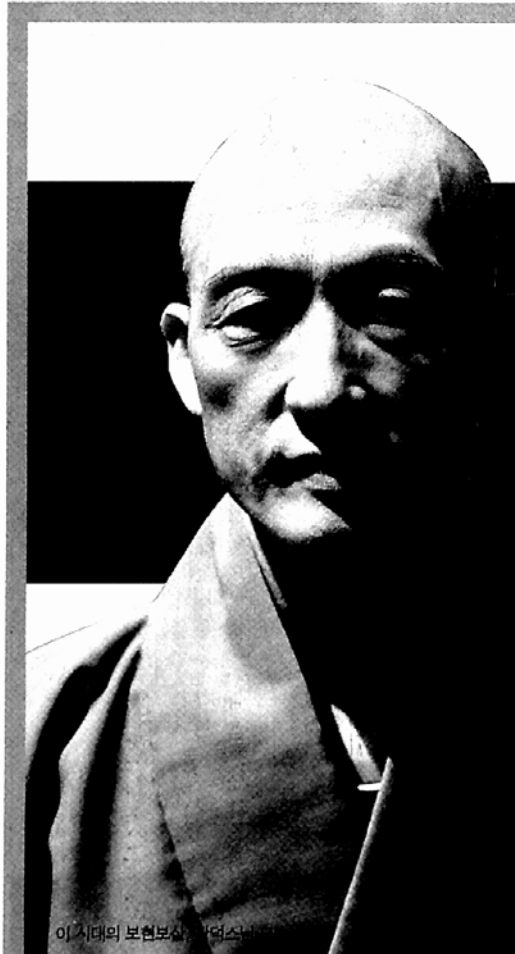
불가의 사제간의 엄격하고도 지엄한 가르침을 비롯하여 사제간의 인간미 넘치는 애뜻한 면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광덕 스님을 친견함과 아울러 잃어버린 스승의 의미를 되찾는데 더할 나위 없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평소 건강이 쇠약해진 스님을 위하여 보복을 크게 해서 양손을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하던 기억이 회백되고 별도 치유된다'는 기사를 보고 스님이 잘 다스리는 도량 안에 벼들을 옮기다 징검다리를 만든 상좌 송암스님은 스님을 만나서 무척하여 버렸으니 나와 징검다리를 놓는 뜻을 스님께 전한다.

물같이 맑고 부드러운 눈빛에 자비롭기 그칠 여덟고 상좌를 만나니 스님의 표정과 눈빛, 그 안에 서린 행복감과 더불어 힘이 솟고 휘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상좌 송암스님

이제 우리는 광덕스님을 만나 볼 수도 없고,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상좌, 송암스님이 쓴 '시봉일기' 2를 통해 보편보살이었던 광덕스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DORIANA 광덕 스님 상좌인 송암스님 1178-1 전화 (031)676-8700 팩스 (031)676-8704 이 책은 전국 대형서점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시대의 보편보살, 스님